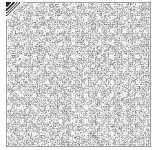



# 시온 주보

제2311호 2020년 11월 8일(가해)

연중 제32주일(평신도 주일)

시각장애인을 위한  
음성변환용 바코드



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| 발행인 염수정 |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| 인쇄 가톨릭출판사

전화 02)727-2114 | 이메일 jubo@seoul.catholic.kr | 홈페이지 <http://cc.catholic.or.kr>

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



## 입당송 | 시편 88(87),3 참조

주님,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.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  
이소서.

## 제1독서 | 지혜 6,12-16

## 화답송 | 시편 63(62),2,3-4,5-6,7-8(◎ 2ㄷ 참조)

◎ 주님, 저의 하느님,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

○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느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. 제  
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.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,  
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. ◎

○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. 당  
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,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◎

○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,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 
올리오리다.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, 제 입술이 환호

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. ◎

○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,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목  
상하나이다.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, 당신 날개 그늘에서  
환호하나이다. ◎

## 제2독서 | 1테살 4,13-18 <또는 4,13-14>

## 복음환호송 | 마태 24,42.44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  
리라. ◎

## 복 음 | 마태 25,1-13

## 영성체송 | 시편 23(22),1-2

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  
고,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.